



금주의 농사 메모

기 간 2024년 2월 12일 ~ 2024년 2월 18일

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요 약

벼농사를 위한 볍씨 준비와 토양관리, 감자 시설재배 수확시기 감자터짐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마늘·양파 추비, 병해방제 시기를 점검하고, 사과 정지·전정 시 꽃눈분화율 확인, 겨울철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보온관리에 힘써야 한다.

1 벼농사

- ✓ (볍씨준비)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 ✓ 신품종으로 바뀌 재배하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한다.
- ✓ (토양관리) 물빠짐이 너무 좋은 사질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에 의해 토양 조건을 개선하여야 벼의 생육 및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보통논, 미숙논은 퇴구비를 시용하고 18cm이상 깊이갈이를 실시해주며, 벧질 또는 퇴구비를 시용하지 않은 논은 봄갈이 해주는 것이 좋다.
-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직무육성 종자를 공급받기 원하는 농가는 아래의 기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통해 신청해야 한다.(유상분양)
 - 신청기간 : 2. 15. ~ 22.(1주간)
 - 신청대상 : 일반농가
 -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분양품종 및 수량, 보급가격 등은 2. 14.(수)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www.nics.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경근(☎.055-254-1812)

2 밭작물

- ✓ (맥류) 밀, 보리의 웃거름 주는 시기는 2월 중순~하순이며 웃거름 표준시비량은 10a에 요소 비료 9~12kg인데, 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나 노력 절감을 위해 전량 1회에 주기도 한다.

- ✓ 토성이 사질토나 작황이 극히 불량한 포장은 2회로 나누어 주고 늦추위로 뿌리 자람이 늦어질 경우 1차 웃거름을 다소 늦추어 주는 것이 좋다.
- ✓ (감자) 봄재배는 감자과종 예정일부터 약 20~30일 전에 산광싹틔우기를 실시하여 감자를 심은 후 싹이 빨리 올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산광싹틔우기는 15~20℃의 온도와 관계습도 80~85%를 유지하고 30~50%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 내에서 실시하되 낮에는 2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며 밤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해 주어야 한다.

구분	산광싹틔우기 시작	정식(아주심기)	기간	싹길이
중부지방	3월 상순 ~ 중순	3월 중순 ~ 하순	20~30일간	1~2cm
남부지방	2월 중순 ~ 하순	3월 상순 ~ 중순	"	"

- ✓ (고구마)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500~7,100본 정도이고 매회 1,500~2,200본의 싹을 생산할 수 있는 씨고구마를 준비해야 하는데, 씨고구마 1kg에 묘 생산량은 20~30개이므로 10a에 필요한 양은 75~100kg 정도이며,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건부병, 검은점박이병, 덩굴쪄김병 등의 예방을 위해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씨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의 기간은 전열온상과 양열온상에서는 40일, 최아비닐냉상 50일, 비닐냉상 50~60일,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전열온상에서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육묘상은 크기는 재배면적 10a당 묘상 10㎡가 있어야 한다.
- ✓ 육묘상은 양열온상, 전열온상, 온수보일러식온상 등으로 설치하며 온상은 태양열을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인공적으로 열을 가하여 씨고구마를 묻은 후 싹이 트기까지 묘상에서는 가급적 고온인 30~33℃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25℃로 조절하며 충분히 관수하여 씨고구마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 ✓ 묘상의 폭은 120~130cm가 묘상관리 및 채묘작업에 용이하며 묘상사이 30cm가 적당하고 길이는 묘상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류선미(☎.055-254-1813)

3 채 소

- ✓ (노지채소) 난지형 마늘·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도록 하되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노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월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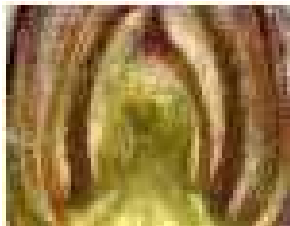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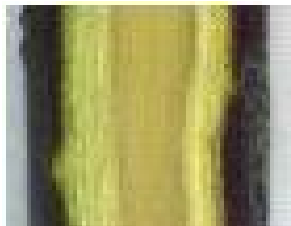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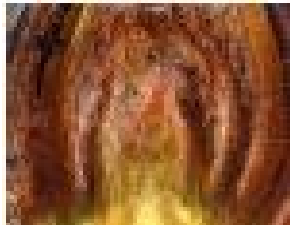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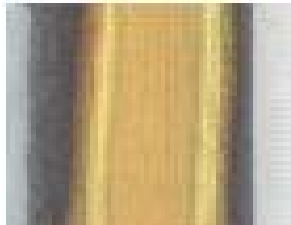

- ✓ 고추 육묘상은 모가 자람에 따라 알맞은 온도로 관리해야 하며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잘록병 방지를 위해서는 야간의 저온을 방지하고 육묘상이 과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 고추 육묘 중 저온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응급처치로 요소 0.3%(물 20ℓ 당 요소 60g)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이 회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봄배추는 모기르기를 할 때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어 물관리만으로 충분하지만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주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 액을 2~3일 간격으로 뿌려주어 생육 촉진 시킨다.
- ✓ 물주는 시기는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모가 웃자라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시설채소)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주며,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실시하여 과습 예방 및 이산화탄소(CO₂)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최병걸(☎.055-254-1822)

4 과 수

- ✓ (사과 정지·전정) 정지전정은 수관 내부에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과실이 달리는 부분을 고르게 분포시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성장과 결실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과 수형을 교정하거나 나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 나무의 신초 길이가 30cm 이상 길고 2차 생장지 및 도장지의 발생이 많으며, 결과지는 중·장과지가 많고 나무 줄기색이 흑색에 가깝고 착색이 불량한 과실이 많으며 잎은 진녹색이고 늦게까지 낙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나무의 수세가 강하므로 약전정으로 가능한 눈수를 많이 남기며 수광 상태를 방해하는 가지는 솎아준다.
- ✓ 나무의 신초가 20cm 이하로 가늘고 꽃눈은 많으나 크기가 작고 도장지 발생이 없고 단과지가 많으며 나무줄기의 색이 적색에 가깝고 잎은 낙엽이 되고 과실 착색은 좋으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나무의 수세가 약하므로 강전정으로 눈수를 적게 남기고 단과지와 결과모지를 솎아주며, 약한 가지는 솎아주고 발육지와 도장지는 많이 남겨야 한다.
- ✓ 가지치기는 꽃눈 분화율 조사 후 실시하는데 꽃눈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 60~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 실시,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한다.
- ✓ (동해피해) 사과의 경우 동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나무는 굴취하고 재정식해야 하나, 가벼운 피해는 고사된 수피를 제거, 피해부 살균제 도포도 포함하여 피해를 경감하여야 한다.

- ✓ 또한, 피해를 받아 수세가 떨어진 나무는 꽃을 제거하여 결실 최소화하고 요소 0.3% 또는 4종 복비를 엽면시비 하여 수세 회복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하며, 이때 나무좀 트랩을 설치하여 나무좀으로 인한 2차 병해충 피해 예방하여야 한다.
- ✓ 과수 동해피해 형태

피해구분	눈	가지(세로절단)	가지(가로절단)
정상조직			
피해조직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형준(☎.055-254-1823)

5 축 산

- ✓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 및 축사시설에 따라 축사 내부 환경관리(청결) 및 방풍·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한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사료급여량을 늘리고, 송아지는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예방을 위해 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 (젖소)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 및 축사 바닥 청결관리 유의해야 한다.
- ✓ (돼지) 일교차가 5℃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유의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출생 직후 30~35℃, 1주일 후 27~28℃, 젖뎀 뒤 22~25℃ 유지)
- ✓ (닭) 20℃ 이하 환경에서 1℃ 낮아질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씩 증가하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 ✓ 겨울철에는 가축의 온도 관리를 위하여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므로 전열기 및 전기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축사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 ✓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내부관리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맹금(☎.055-254-1833)